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알리피오스 수사

루가 제13주일

성 클리멘트 로마의 주교

제6조, 조과복음 1

(조과에서 성탄 까따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교 찬양송 / 84. B 263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B 237

· 사도경: 에페소 2,4-10 / 봉독서 310

· 복음경: 루가 18,18-27 / 131. B 81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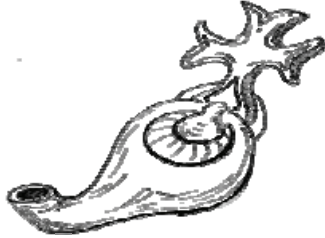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알리피오스 수사

우리 교회에서 11월 26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알리피오스가 세속을 멀리 떠나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성인의 어머니는 “가거라, 나의 아이야, 어디서든 주님께서 너를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어머니가 아들을 전쟁에 보낼 때 했던 영웅적 행동에 대한 걱려의 말은 조금도 없습니다. 스파르타의 어머니는 방패를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갈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스파르타의 아

들들은 전쟁에서 돌아 올 수 있었지만, 사막의 수도자들은 집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의 투쟁이 스파르타 사람들의 전쟁보다 더 약하지 않았습니다.

성인들은 온 삶을 하느님의 왕국을 위해 투쟁하고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가지고 갈 것’은 없고 오직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피오스 성인은 기둥 위에서 53년간 수도 생활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작은’ 그리고 ‘큰’ 욕망들



수르즈의 안토니오스 블룸 대주교는 경험이 많은 영적 의사이고 사람의 심리에 해박한 학자로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보기에는 매우 큰 끔찍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해가되고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심하게 다투다가도 한 여름의 소나기처럼 다툼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면에 독을 품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뇨, 괜찮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앞의 ‘다툼’보다 오히려 더 큰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자 개개인이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마태오 15:19)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독들은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아뇨, 괜찮습니다.”라는 친절해 보이는 말도 오히려 하나의 욕처럼 나쁜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롱의 미소, 하나의 살기가 있는 눈빛, 하나의 업신여기는 생각이 한 사람의 명예와 존엄성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춘과 간음과 같은 관능적 쾌락에 빠져있다면, 다른 여성이나 남성에게 호의를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하느님과 갈라놓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작은’ 그리고 ‘큰’ 모든 욕망들을 뽑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욕망만 아니라 ‘작은’ 욕망과도 싸워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 독이 우리와 다른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기

구약의 예언과 교회 전통 속의 성모님

해마다 11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성탄 대림 금식을 시작한다. 40일 동안 우리는 예배와 성서 봉독을 통해 주님의 탄생에 집중한다.

12월의 여러 날에는 구약의 예언들과 주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인물들을 기념한다. 이를테면 1일에는 나훔 예언자, 2일에는 하바꾹 예언자, 3일에는 스바니아 예언자, 16일에는 하깨 예언자, 17일에는 다니엘 예언자와 세 아이를 기념한다. 덧붙여서 성탄에 앞선 두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강생을 준비한 구약의 다른 예언자들과 여러 인물들을 기념한다.

40일 금식 기간 중에 특별히 중요한 날이 자리잡고 있는데, 바로 성모님의 입당 축일이다.(11월 21일) 성모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둘러싼 모든 것이 특별하다. 첫째, 성모님의 탄생은 천사가 알려주었다. 둘째, 성모님은 매우 나이 많고 불임(不妊)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다. 셋째, 당시의 관습에 따라 성모님이 성전 입당 의식을 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제 즈가리야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맞아들이면서 대사제만을 위해 준비된 지성소로 성모님을 인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요셉과 약혼하기까지 성전에서 양육되었다. 초와 등잔을 든 소녀들의 호위를 받으며 세 살에 성전으로 입당한 성모님의 존재는 성모 입당 축일의 중심을 이룬다.

성모님은 완전함과 죄 없으심으로 악마의 머리를 부수신 새로운 이브(Eve)이다. 성모님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매우 높은 영예를 누리며, ‘헤루빔보다 더 영예로우시고 세라핌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으로 언급된다. 무엇보다도 성모님은 ‘테오토코스’ 또는 ‘하느님을 낳으신 분’으로 불려진다.

테오토코스에 대한 공경은 성모님 자신이 말한 예언을 완성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루가 1:46-48)

따라서 성모 입당 축일은 시간과 역사 속에 하느님이 개입하심을 뜻하는 때, 곧 주님의 육화(肉化)를 기념하는 시기가 시작되는 곳에 자리한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을 낳으신 분에게 합당한 영예와 경의와 공경의 마음을 바친다.

▶ 아타나시아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30일(토) 축일을 맞이하는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성 안드레아 사도의 중보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수도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구세주 변모 수도원 방문 ▷ 지난 11월 17일 주일에 슬라브어 사용 신자들 30여 명은 로만 카프작 신부와 함께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와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와 로만 카프작 신부가 집전한 성찬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사랑의 오찬을 함께 나누면서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영적 말씀을 듣고,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수도원 주변에 낙엽과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하였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철야 예배 ▷ 오는 11월 29~30일 첫 부름받은 사도 성 안드레아 축일을 맞이하여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 철야 예배가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숙소 예약과 식사 준비를 위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사무실로 11월 24일까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 니콜라스 축일 시작 ▷ 오는 12월 1일 주일부터 성 니콜라스 성화와 성 유해를 성당 중앙에 놓으면서 축일이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의 수호성인 축일에 동참합시다.

■ 성 니콜라스 축일 일정

- 12월 5일(목) 오후 5시 30분: 대만과, 아르토콜라시아, 리파니아
오후 6시 45분: 성찬예배
오후 8시: 축일 만찬
- 12월 6일(금) 오전 9시: 축일 조과
오전 10시: 성찬예배
오전 12시: 축일 오찬

■ 성당 대청소 ▷ 오는 12월 1일 주일 성찬예배와 사랑의 오찬 후에 성 니콜라스 축일을 준비하는 성당 대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간예식

- 11월 25일(월) 성 에카테리나 대순교자, 성 메르쿠리오스 대순교자 축일
- 11월 30일(토)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